

# 충재 권벌 선생 답실마을 입향 500주년



청암정

충재(沖齋) 권벌(權穰, 1478~1548, 북야공과, 20世) 선생이 안동 도촌(道村)에서 봉화 유곡(酉谷) 답실마을로 1520년 입향(入鄕)한 지 2020년 500주년이 되었다.

유곡중종 권규 종친회장과 답실중가 권용철 주순(胥孫) 등 후손들은 선조의 뜻을 기리고자 마을 입구에 입향 500주년 기념비를 세웠다.

특히 충재권벌선생입향오백주년기념사업회를 구성하여 10월 8일 토요일 10시에 경향 각지의 귀빈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거행한다.

그동안 답실마을은 시(詩)로 명성이 자자한 창설재(蒼雪齋) 권두경(權斗經) 선생을 비롯하여,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하당(荷塘) 권두운(權斗雲) 선생과 명필로 유명한 대졸자(大拙者) 권두응(權斗應) 선생 등 28두(斗)로 일컬어지는 기라성 같은 쟁쟁한 현손(賢孫)들이 충재선생의 공(公), 청(淸), 강(剛)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켰기 때문에 명실공히 그야말로 한국의 유서 깊은 역사적인 마을로 자리매김했다.

충재 선생은 삼척부사로 선정을 펼치다 기묘사화로 인해 1519년 11월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 능주에서 유배 중이던 정암(靜庵) 조광조 선생이 12월 사약을 받고 타계하자 양친통곡 한다. 이듬해에는 직접까지 모두 빼앗기는 수난을 당한 뒤 선부의 묘소가 있는 봉화의 답실로 입향한다. 1521년에는 지기(知己)이자 기묘사화의 대표적 인물인 충암(沖庵) 김경(金淨) 선생이 제주도 귀양지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을 듣자 대성통곡한 후 충재(沖齋)라는 호를 지어 추념한다. 또 서쪽 바위 위에 6간 정자를 짓고 정자 주위에 못물을 두르게 하여 청암정(靑巖亭)이라 이름했다.

1547년(명종 2년)에는 경기도 과천 양재역 벽에 '여왕이 집정하고 간신들이 권세를 농락해 나라가 망하려 하니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라는 괴문서가 나붙는 양재역 벽서사건이 발생하자 문정왕후는 대운 윤임의 잔당으로 지목된 사대부들을 제거한다.

이때 충재 선생도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다. 고을 사람들과 작별하는데 진사 금원정이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우니 "사생화복(死生禍福)은 천명이니 그 천명을 어찌하리오" 하고 떠났다. 처음에는 전라남도 구례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 평안북도 태천으로, 또 다시 평안북도 삭주로 이배(移配)되어, 이듬해 유배지에서 세상을 뜨고 만다. 그해 71세였다.

이처럼 충재 선생이 당대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관이 말하듯이 머리를 베고 가

슴에 구멍을 낸다 해도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을 무쇠와 같은 사람(명종실록 명종 즉위년 8월 28일)이었기 때문이다. 충재 선생은 공(公)적인 일이라면 죽을 앞면이라도 유곡중정으로 임금에게 말해야 하고 옳다고 생각한 바를 꾸밈없이 그대로 직간하는 올곧은 선비였다. 한 번 죽음으로써 국가에 보답할 것을 맹세하고 밤을 새워가며 걱정하고 분해하며 불을 밝혀 아필 글을 써 가지고 이른 아침에 대궐로 나아가려 하니 집안 사람, 아들, 딸, 사위들이 울며 말리는데도 뿌리치고 나가는(영가인행록) 강직한 선비였다. 그 절의는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었고 능률한 기상은 추상같았다. 절개를 굳게 지키는 대장부였다. 이런 충재 선생을 두고 정광필은 권벌은 어려울 때를 당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선생은 시비를 가리거나 변란에 임해서는 기개가 대단했으나 보통 때는 성품이 온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번은 여종이 밥상을 들고 오다가 넘어져서 국을 쏟아 옷이 더럽혀졌는데도 조금도 화를 내는 빛이 없었다.(연려실기술) 또한 선생은 글 읽기를 무척 좋아하는 선비였다. 특히 근사록(近思錄)은 늘 소매 속에 지니고 다녔다. 일찍이 중종이 신하들을 후원에 불러들이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모두 실컷 즐겁게 놀다가 취한 몸을 부축받으며 돌아간 뒤에 내시가 조그만 책으로 된 근사록을 주었다. 임금은 "권벌에게서 떨어진 것이구나." 하고 돌려주도록 명했다.(연려실기술) 이처럼 임금이 알 정도로 권벌 선생은 근사록을 좋아하고 탐독했다.

영조는 1540년 중종 때 "경희루 아래에서 상화연(賞花宴)을 베풀었는데, 고 찬성 권벌(權穰)이 술이 취하여 물러나는 순간 소매 속에 <근사록(近思錄)> 한 권을 떨어뜨린 것을 중요계서 취해서 보신 일이 있는데, 이 책이 지금 병조 좌랑 권만(權萬)의 집에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권만으로 하여금 <근사록>을 올려바치도록 명"한다.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8월 22일) 정조 또한 "충정의 <근사록>을 보고는 충정의 집에 <심경> 한 부를 특별히 하사하여 <근사록>과 같이 간수하도록"하고, "충정공(忠定公) 권벌(權穰) 집의 <근사록>에 대해서도 서문을 지어 내린다." (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 8월 30일) 이 책자들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충재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충재 권벌 선생은 답실마을의 입향조이다. 500년 동안 '푸른 바위 청암(靑巖)'은 충재 권벌선생과 답실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그 후손들은 그 푸른 바위를 닦으려 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17>

# 용이와집(龍耳窩集)



권갑현 편집위원장

<용이와집>은 권리(權履, 1800~1873) 공의 문집으로 원집(原集) 9권, 속편(續編) 1권으로 총 5책이다.

공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의 32세로 북야공과이다. 출생지는 지금의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대죽마을이다. 자는 경중(景中)이고, 호가 용이와(龍耳窩)이며 죽담(竹潭)이라는 호도 사용하였다. 부친은 권방렬(權邦烈, 1773~1837)이며, 모친은 인천이씨(仁川李氏, 1773~1848)로 정맹(廷孟)의 따님이다.

공은 일찍부터 경사백가(經史百家)를 탐구하였으며 성재(性齋) 허전(許傳, 1797~188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이원우(李源祐), 강윤제(姜允齊), 허임(許恁) 등과 교유하였다. 29세인 1828년 무자년(戊子年) 식년시에 진사 3등으로 합격하였다. 1829년 9월에 <경행일록(京行日錄)>을 지었으며, 1832년 화산서원(花川書院)에 참향(參香)하고 병산서원(屏山書院)과 도산서원(陶山書院)을 방문하였다. 1837년 5월에는 <경행일록(京行日錄)>을 지었으며, 1842년 3월에는 금산(錦山) 일대를 유람하고 <유금산록(遊錦山錄)>을 지었다. 1846년 7월에는 의령(宜寧), 달성(達城) 등지를 다니고 <동정일기(東征日記)>를 지었으며, 1852년 3월에는 덕유산 일대를 유람하고 <유덕유산록(遊德裕山錄)>을 지었다. 그리고 1862년에 <시문시선(詩文詩選)>을 지었다.

공의 유문(遺文)은 공의 사후에 손자인 권좌한(權佐漢, 載龍, 1845~1895), 권용한(權用漢, 載華, 1855~1902)과 종질(從姪) 권태두(權泰斗, 1848~1915) 등이 수집(收集)하여 필사(筆寫)하여 정리하고 간행할 준비를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저자의 증손인 권오영(權五永, 1865~1942, 호 三省軒) 등이 별집(別集)과 부록(附錄)을 추가하고 척암(拓菴) 김도화(金道和, 1825~1912)에게서 서문을 받아 1909년경에 목활자로 인간(刊印)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집(原集)에 빠진 시문(詩文) 일부도 수습하여 속편(續編)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본 <용이와집>은 권두에 1909년에 김도화(金道和)가 쓴 서문과 본 문집의 전체 목록이 있다. 권1-2는 시(詩) 256 제(題)이다. 권3의 전반부는 상언(上言) 1편, 장(狀) 3편, 서(書) 17편이다. 권3의 후반부~권4는 잡저(雜著) 13편이다. 권5는 서(序) 9편, 기(記) 5편, 발(跋) 7편, 명(銘) 3편, 상량문(上樑文) 5편, 축문(祝文) 8편이다.

권6는 제문(祭文) 15편, 애사(哀詞) 1편, 비명(碑銘) 1편, 가장

(家狀) 4편, 실록(實錄) 1편, 기실(記實) 2편이다. 권7-8은 별집(別集)으로 5편의 일기류(日記類)이다. 권9는 부록(附錄)으로 만구(晩求) 이종기(李種紀, 1837~1902)가 지은 행장(行狀), 권후(權厚, 1816~1890), 강황(姜鎧), 조성윤(趙性胤)이 쓴 제문, 김인섭(金麟燾), 김택영(金宅永), 이상두(李尙斗), 노응길(盧應吉) 등이 지은 만사(輓詞)로 되어있다. 끝에 증손 권오영(權五永)이 문집 간행의 배경과 경과를 적은 발문이 있다.

속편(續編)은 권1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 6제, 제문(祭文) 4편, 묘지(墓誌) 1편이다. 끝에 첨부된 김도화가 쓴 <속집목록서(續集目錄書)>는 원집(原集)에서 빠졌던 자료를 찾아 모아 서속집(續集)으로 만들어 원집과 함께 간행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글이다.

이 초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한국고전종합DB>에서는 구두점이 붙은 원문 이미지와 컴퓨터 입력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다음은 공이 관향(貫鄕) 안동(安東)의 태사묘(太師廟)와 태사묘(太師墓)를 참배하고 지은 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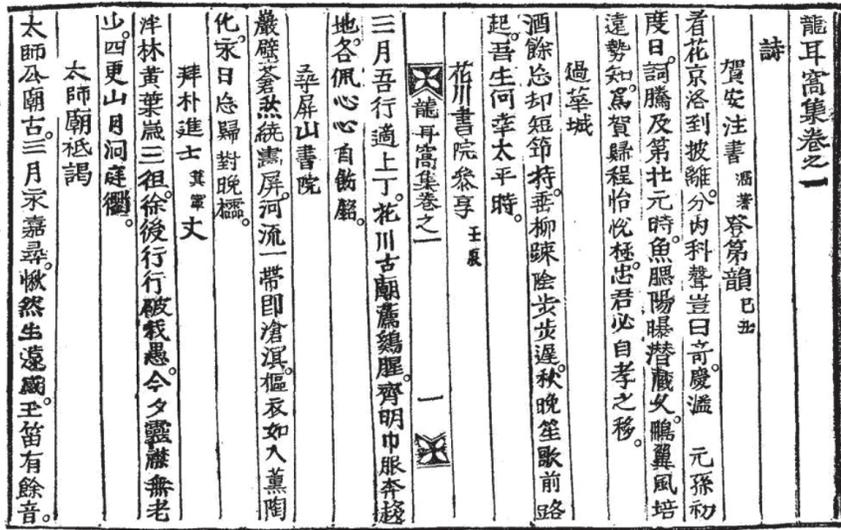
### 太師廟祇謁(태사묘지알) 태사공 사당을 공경하게 찾아 뵈다.

太師公廟古(태사공묘고) 태사공의 사당은 오래 되었는데 三月永嘉壽(삼월영가수) 올해 3월이여 안동을 찾아 왔네 愀然生遺感(초연생원감) 조용히 멀리 생각이 일어났으니 玉笛有餘音(옥적유어음) 옥피리에 소리 남아 있는듯하네

### 省拜太師墓(성배태사묘) 태사공 묘소를 참배하다

寒食東風草樹邊(한식동풍초수변) 한식날 풀과 나무에 봄바람이 부는데 雲孫來拜襲香烟(운손래배습향연) 자손들 찾아와 절하니 향불연기 배네 今行適遇諸宗會(금행적우제종회) 이번 행차에 여러 일가모임 만났으니 先祖神靈必使然(선조신령필사연) 시조님 신령께서 그리 시키신 거라네

위의 첫 번째 시의 제4구는 안동 태사묘 보물각에 피리가 소장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였고, 두 번째 시의 제1구는 춘향(春香)을 봉행하는 한식날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 가시덤불을 두르고 정진하던 곳, 범흥사



권혁진 박사  
추밀공파, 36세, 강원한문연구소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은 『택리지』에서 은둔지로 사자산 남두릉과 주천을 꼽았다. 이공익(李肯翊, 1736~1806)은 『연려실기술』에서 산천이 뛰어난 곳으로 사자산을 들었다. 치악산의 동북쪽에 있으며, 30리에 걸쳐 물과 바위가 있는 주천강의 근원인 곳. 남쪽에 있는 도화동·두릉동은 모두 경치가 뛰어나며 복지(福地)라고 일컫는 곳이다. 성해응(成海應, 1760~1839)도 이공익의 설명과 비슷하게 사자산을 언급하였다. 최근에는 이곳을 세상과 다른 별천지인 무릉도원으로 면 이름을 바꿨다. 범흥사를 가는 길은 경치가 좋아 캠핑장이 줄지어 들어섰다. 범흥1리 새터 마을 길 옆에 자그마한 바위가 범상치 않다. 황장금표비(黃腸禁標碑)를 새긴 바위다. 1802년에 새겨졌으니 어느덧 200년의 세월을 훌쩍 넘겼다. 궁궐 등의 건축재로 공급된 질 좋은 소나무인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새긴 것이다.

다시 길을 나선다. 계곡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본성을 찾는 것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선의 수행단계처럼 느껴진다. 소를 찾는 심우(尋牛), 소 발자국을 발견한 견적(見跡), 소를 발견한 견우(見牛), 소를 붙잡는 득우(得牛), 소를 길들이는 목우(牧牛), 소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우귀가(騎牛歸家), 돌아와 보니 소는 없고 자기만 남아있는 망우존인(忘牛存人),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인 인우구망(人牛俱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반본환원(返本還源),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입천수수(入塵垂手)가 수행단계 10단계다. 처음 선을 닦게 된 동자가 본성이라는 소를 찾기 위해서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도를 깨닫게 되고, 최후에는 선종의 최고 이상향에 이르게 됨을 나타낸다.

신라 말에 선종(禪風)이 크게 일어나면서 기성 사상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각 개인이 사색하여 진리를 깨달을 것을 권유했다. 아홉 종파가 전국의 명산에 사찰을 세웠는데 절중(折中, 826~900)은 사자산 흥녕사(興寧寺)에 머물며 제자를 양성했으며, 사자산과 라불렀다. 사자산을 찾아가니 본성인 소를 찾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절중(折中)의 시호는 징효(澄曉)다. 경내에 부도와 징효대사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가 세워져 있다. 거북 모양의 받침돌 위에 비 몸을 올리고, 위에 용머리가 조각된 머릿돌을 얹었다. 받침돌의 거북머리는 용의 머리에 가깝고,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다. 특히 발가락과 발톱은 사실적으로 조각한 것이 눈길을 끈다. 비문에는 대사의 출생에서부터 입적할 때까지의 행적이 실려있다. 고려 혜종 원년(944)에 세워진 비로, 글은 최원위(崔彦偉)가 짓고 최윤(崔允)이 글씨를 썼다. 부도 옆에는 200년이 넘는 밤나무가 서 있다. 우리나라 밤나무 가운데 손꼽히는 큰 나무 중 하나다.

적멸보궁은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수도하던 곳이다. 사자산 연화봉과 연결된 능선은 벌의 머리 모양을 이루다 적멸보궁을 앞에 두고 다시 절벽을 이룬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형세다.

적멸보궁이 터전을 잡은 곳부터 능선이 완만해지는 곳에 범흥사가 자리 잡고 있다. 적멸보궁 뒤편의 토굴은 자장율사가 수도하던 곳이다. 낮은 언덕으로부터 내려오는 완만한 경사를 이용하여 흙으로 위를 덮었고, 흙을 쌓기 위해 토굴 주변에 석축을 올렸다. 내부는 가로가 1m 60cm, 높이가 1m 90cm 정도로 한 사람이 앉아서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위에 가시덤불을 두르고 정진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흥녕사는 891년에 봉화로 소실되었고, 944년에 중건하였다. 그 뒤 다시 불타서 천 년 가까이 조그만 절로 명맥만 이어오다가 1902년에 중건하고 범흥사로 개칭하였다. 1912년에 다시 화재로 소실된 뒤 1930년에 중건하였다.